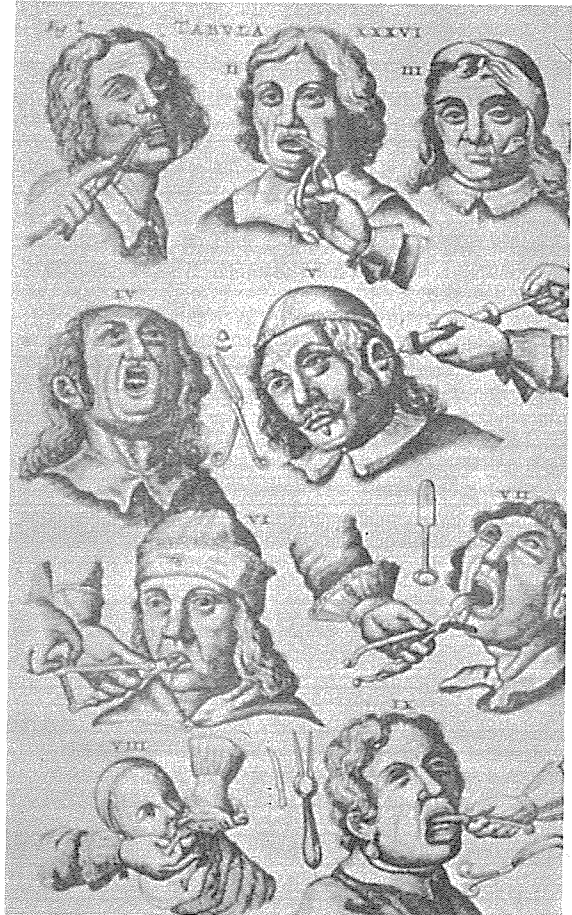


미술작품을 통하여 본  
치과 의학

특별기획 시리즈  
제 165 회

금성치과의원 원장

-김 규 문-



여러가지 치과 수술기구

요하네스 스클레토스의 「外科用 器具」 1665년에서 발췌한 치과수술 기구의 판화이다. 이것은 17세기 外科術에 관한 수준 높은 문헌이다. 마취는 아직 발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알코올 기타 약물이 쓰여졌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 당시에는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가진 의사가 부족하였는데 약종상은 그 틈을 메우고 너무 약종상을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는 때로는 사용법에 대해서 지사가 없는 처방을 쓰고 환자에게만 가르치거나 했다.

이에 대해서 약종상은 약을 많이 처방해 주는 의사에게만 환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보복했다고 한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소장)